

# 유통업체, '3분기, 기대반 우려반'

유통업체들의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가 전분기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성)가 백화점과 할인점, 슈퍼마켓 등 전국 85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05년 3/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조사」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(RBSI, 기준치=100)는 '104'로 기준치인 100을 넘고 있지만, 전분기보다는 2포인트 하락했다.

구 분	2002년		2003년				2004년				2005년		
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
RBSI(전망)	105	112	85	94	105	74	89	116	98	79	68	106	104
RBSI(실적)	101	61	62	76	72	52	65	67	73	42	72	81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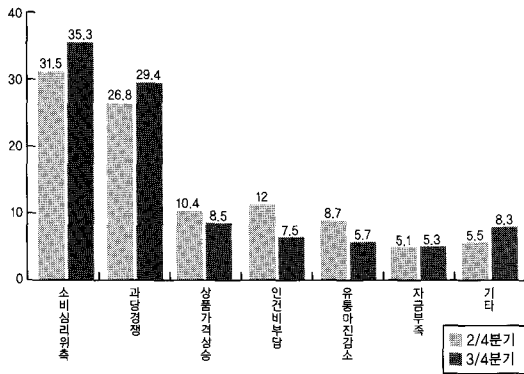
[소매유통업 경기전망치수 추이]

RBSI는 소매유통업체들의 현장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,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의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RBSI전망치를 업체별로 보면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할인점(117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판매(98)와 슈퍼마켓(97)을 제외한 전 업태가 기준치인 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편의점을 제외한 전 업태의 지수가 전분기보다 하락해 지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.

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인 슈퍼마켓(97)은 서민층의 소비위축을 우려해 전분기(98)에 이어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. 지수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은 백화점(105)과 전자상거래(104)로 전분기보다 각각 11포인트 하락했다. 다만 하절기 진입으로 야외 및 야간활동 증가를 기대하는 편의점은 업태 중 유일하게 지수가 상승했다.(전분기:104 → 3분기:110)

지역별로는 서울(110), 대구(109), 대전(103) 부산(102), 인천(101), 울산(100), 광주(85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마지막으로 유통업체들은 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▲ 소비심리위축(35.3%)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으며 전분기(31.5%)보다 3.8%p 증가했다. 이외에 ▲과당경쟁(29.4%), ▲상품가격상승(8.5%), ▲인건비부담(7.5%), ▲유통마진감소(5.7%), ▲자금부족(5.3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의 관계자는 “유통업체들은 아직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, 대부분의 업태에 있어 전망지수가 하락하는 등 불안한 상태”라고 언급하며, “내수 회복에 보다 더 정책역량을 집중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견인해야 한다.”고 말했다. **특보**